

탄력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 확보, 클릭 한 번으로 자동화된
조정 수행

Veritas Resiliency Platform 소개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다양한 시스템 환경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프레미스 인프라스트럭처와 오프프레미스 인프라스트럭처가 융합된 환경에서는 비즈니스 서비스 레질리언스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벤더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면서 간소화된 자동 조정 솔루션을 사용하여 가변적인 SLA 요구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Veritas Resiliency Platform은 현재 직면한 어려움은 물론 잠재적인 IT 과제까지 해결합니다. 베리타스는 플랫폼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실시간으로 IT 에코시스템을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레질리언스 운영을 간소화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기존 투자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확장성을 제공하고 최신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양한 환경을 수용하는 베리타스 솔루션은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레질리언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리스크가 큰 수작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하고 자동화된 재해 복구(DR) 리허설을 통해 비즈니스 연속성 요구 사항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는 기능입니다.

Resiliency Platform으로 중요 비즈니스 서비스 레벨 목표를 관리하는 데 따르는 복잡성을 해소함으로써 IT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제약 없이 새로운 플랫폼을 설계하고 도입할 수 있습니다.

VERITAS™



활용 사례 1

북미 항공사, 예약 시스템을 지동 레질리언스 운영 방식으로 전환



최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휴가나 출장을 위해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도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싶어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복구를 수행하는 동안 소중한 고객을 경쟁업체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의 한 항공사**는 수작업에 의존하는 레질리언스 운영 방식을 자동화하기로 했습니다. 항공 예약 시스템의 100% 가동 시간을 보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데이터센터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보조 데이터센터 모두에서 가동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모색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레질리언스 완료

이 항공사는 Veritas Resiliency Platform을 도입하여 모든 레질리언스 운영을 자동화하고 가동 중단 없이 재해 복구 리허설을 수행하여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분산된 멀티티어 비즈니스 서비스를 클릭 한 번으로 복구할 수 있으며, 레질리언스 전략 이행을 위해 여러 팀과 이해 관계자가 투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항공사는 Resiliency Platform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사용 편의성의 혜택을 누릴 뿐 아니라 복구 상세 수준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요

목표:
예약 시스템에서 100%의 가동 시간 보장

직면 과제:

- ⇒ 미국 내 위치한 주 데이터센터와 다른 국가에 있는 보조 데이터센터 모두에서 물리적 시스템 및 가상 시스템의 가동 시간 관리
- ⇒ 수작업으로 운영되는 레질리언스로 인해 리스크 증가

베리타스 솔루션으로 해결:

- ⇒ 클릭 한 번으로 로컬 복구
- ⇒ 드래그 앤드 드롭 방식으로 IT 아키텍처 매핑
- ⇒ 자동 프로세스로 다운타임 리스크 완화, 직원에 의한 실수 감소
- ⇒ 가동 중단 없이 복구 테스트 실행
- ⇒ 애플리케이션 인식형 복구 플랫폼 구축



활용 사례 2

싱가포르 보험사, 베리타스 솔루션으로 가동 시간 보증



재해 복구 보증

보험 업계에서는 신뢰와 보증 능력이 최우선입니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한 보험사의 비즈니스 연속성 전략은 이러한 핵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레질리언스 운영이 수작업으로 관리되어 다운타임 리스크가 높고 직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탄력적인 하이브리드 환경

이 보험사에서 3주간 기술 검증을 수행한 결과 Veritas Resiliency Platform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베리타스 솔루션이 기존 환경에 원활하게 통합되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스트럭처를 전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리타스는 하이퍼바이저를 기반으로 하고 스토리지에 구매받지 않는 복제 기술을 활용하므로 스토리지 비용도 절감합니다.

또한 두 데이터센터에 구축된 가상 팜과 물리적 팜 간의 복구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복제 기능으로 수월하게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이행하며, 데이터베이스 인식형 복구와 기본 데이터베이스 로그 전달(log shipping) 기능으로 복구 프로세스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개요

목표:
하이브리드 IT 환경에서도 복구 관련 컴플라이언스 요건 이행

직면 과제:

- ⇒ 수작업으로 운영되는 레질리언스로 인해 리스크 증가
- ⇒ 하이브리드 IT 환경의 복잡성

베리타스 솔루션으로 해결:

- ⇒ 기존 환경과 원활하게 통합
- ⇒ 가상 팜과 물리적 팜 간의 복구 조정 및 자동화
- ⇒ 하이퍼바이저 기반 복제
- ⇒ 데이터베이스 인식형 복구



활용 사례 3

미국의 전기회사, 예측 가능한 복구 솔루션으로 규제 요구 사항 충족



예기치 않은 정전 발생

정전이 되면 전기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며 고객의 불만도 높아집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한 전기회사는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59분 이내로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59분 이상 지속되면 주 공익사업 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에 보고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레질리언스 비즈니스 서비스 아키텍처 구현

베리타스는 이 회사에서 페일오버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맵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용 편의성을 갖춘 레질리언스 비즈니스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 가동 중단이 59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보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미 사용 중인 베리타스 솔루션 InfoScale에 Veritas Resiliency Platform을 추가했습니다. 두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하여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복구를 조정하면서 고가용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솔루션에서 애플리케이션 상태 및 복구 준비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 결과 재해 복구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요

목표:
정전 시간을 59분 이내로 단축

직면 과제:
⇒ 지역 주민을 위해 제공되는 미션 크리티컬 비즈니스 서비스의 가동 시간 관련 정부 규정 준수

베리타스 솔루션으로 해결:
⇒ Resiliency Platform과 InfoScale을 연계하여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복구를 조정하고 고가용성 실현
⇒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페일오버 구현
⇒ 애플리케이션 상태 및 복구 준비 수준 실시간 모니터링